마 24:37~51/ 창 6:5~8 “노아의 때” 2026년 9월 20일

1.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비유하시는 말씀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2. 지난 번 니느웨 때와도 사뭇 다릅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왕 마저도 40일 간의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임할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허비한 것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것으로!

3.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특히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임한다”는 것은, 비유하기를,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4. 예수 재림을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일을 처음 당하는 것처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절을, 앞으로 있을 재림을 점칠 때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보이면, 말세라고 말하고,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5. 그러나 아쉽게도 노아의 때에는, 그것이 재림을 가리킨다는 힌트가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단지 노아의 때와 똑같은 현상이, 예수의 시대에도 일어날 것처럼 이해된 채, 지금도 반복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앞 일에 대한 예언도 아니고, 앞으로 닥칠 심판을 피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도 아닌 것입니다.

6. 예수께서는 인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 시대의 문화상을 지적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일!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일들은, 노아의 때 만이 가지는 독특한 현상은 아닌 것입니다. 단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한 현상이 지난 번 말씀드린, 염려하지 말아야 할 목록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 만일 오늘날, 우리의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결혼 예복을 고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곧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때문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사실 이 염려의 목록이란, 인간 삶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범주에서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두고 재림이 임박했다고 경고한다면, 그건 객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9. 노아의 시대란 시간적으로, 홍수가 일어나기 전 600년을 가리킵니다. 그 시대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은 거의 1천년에 달하고, 잠자리 조차도 황새처럼 자라났지요. 너무나도 훌륭한 환경을 가졌습니다.

10. 그런데 그러한 자연 속에서 살던 그들이, 마치 지금의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들이, 먹거리 걱정으로 자신들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11. 또 어떤 자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걸 나눌 줄 몰랐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먹거리가 염려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는 먹고 토하는데, 다른 누구는 굶주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심판의 때가 도적같이 다가온다고 외쳤습니다.

12.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여전히 계속되는 현상을 보면서, 그때의 그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그들이 간과했던, 부의 분배와 공평과 정의의 문제에 더 관심하게 된다면? 비가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 재림을 늦출 수 있겠습니까?

13.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자께서 임하실 때의 현상이란,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 때문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시는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때문에 무언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숙제가 있는 줄 까먹은 것입니다.

14.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숙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 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깨어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는 아버지 만이 아십니다.

15.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때란,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때라는 말이지요.다른 말로, 카라트, 곧 심판의 때란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재림이라고 부른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16.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던 사람들이 미쳐 깨닫지 못하는 것이란,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 곧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걸 모르고 집도 사고 밭도 갈고….

17. 아브라함의 생애를 묘사한 곳으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10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18. 여기서 드러나는 현상이란, 아브라함이 장막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도성이 주어질 것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목민이 되었습니다. 어느 땅에 정착하고 농사짓고 사고 팔고, 또 시집 가고 장가가는 일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19. 여기서 유목민, 노마드란 목축업을 하는 자를 가리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가 시간이 되면 장막 바깥에 나가 앉아 있었겠습니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실현시킬 하나님이 오실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 그래서 다시 한 번 뒤돌아 보면,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란, 어떤 특별한 문명을 이루고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흐려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서 참 소망이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한 것을 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 자들인 것입니다.

21.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930세에 죽었습니다. 므두셀라는 969까지 살았지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대충 천 년 동안에는 사람이 늙어서 죽는 법은 보기 드문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기까지 130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란, 인간들이 늙어서 죽으려면 1천년이 지나야 하는 세월을, 대략 1300년 정도 경험해 온 자들이란 것입니다.

22.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지 약 천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대로, 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아담이 늙어서 죽었습니다. 인간이 늙어서 죽어나가기 시작한 지 13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마치 안 죽을 것처럼!

23.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약속이자 심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잊은 것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만일 당시의 지구가 처음 창조했을 때와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2천년 동안, 그들의 머리에 빗방울이 떨어진 적이 없었던, 기이한 현상이었지요.

24. 여기서 그 “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바로 그 “한 번 죽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잊은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또, 그런 일을 1300년 동안 경험해 오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미래에나 있을 것이라고 치워 놓았던 시대인 것입니다.

25.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 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그것을 말하거나, 그것을 기다리거나 소망하는 것이 소홀해지는 모습이 있다면, 지금이 곧 노아의 때이고, 곧 인자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